

반칙쟁이 탈출기!

김 서현

나는 문복레 할머니를 포함한 여러 어른들의 청렴 사연을 읽으면서, 1학기 때의 일이 떠올라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도 회원이 엄마처럼 선생님한테 커피하고 케이크 좀 갖다 주면 안돼요?”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엄마께 전화해서 투덜거렸다.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시는 엄마께서 말씀하셨다.

“서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암튼 엄마는 지금 바쁘니까 이따 퇴근한 후에 말하자.”

엄마께서 퇴근하시자마자 나는 회원이 엄마가 학교에 올 때마다 커피와 케이크를 가져와 선생님께 드린다고 얘기를 했다.

“엄마, 그래서 선생님이 회원이를 더 예뻐해 주시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도 시간 내서 학교에 와서 선생님께 커피랑 케이크 드리라고요!”

내 말을 들은 엄마께서는 헛웃음을 터뜨리시고는 바로 엄한 표정을 지으셨다.

“서현아, 너희 반 아이들이 서른 명이 넘는데 엄마가 선생님께 너만 예뻐해 달라고 선물을 드리면 다른 애들한테 불공평하지 않을까? 그리고 선생님도 부담을 느끼실 거야. 선생님이 그런 것 가져오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면! 네가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숙제와 준비물을 잘 챙기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면 선생님이 알아서 예뻐해 주실 거야. 엄마는 너희 선생님을 믿는다. 선생님은 커피와 케이크 때문에 회원이를 예뻐하시는 게 아니라 회원이가 예뻐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예뻐해 주시는 걸 거야.”

나는 내 맘을 몰라주는 엄마가 너무 야속해서 소리쳤다.

“엄마, 우리가 그렇게 가난해요? 선생님께 선물 주는 돈이 아까우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는 반칙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엄마께서 나보다 더 큰 목소리로 소리 치셔서 나는 좀 무서웠다.

“학교에서 피구 할 때 반칙하는 아이들 있지? 그런 아이들은 바로 아웃되잖아. 운동회 때 반칙하는 팀은 반칙패 당하지? 이것도 똑같은 거야.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은 반칙을 하는 거야. 그런 것 드리지 않아도 네가 학교생활을 잘하면 당연히 선생님께 사랑 받게 돼 있어. 선생님이 널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잖아. 반칙하면서 비겁하게 살고 싶어? 아니지?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마!”

그 순간, ‘반칙’이라는 말이 내 가슴에 와서 쿡 박혔다.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할 때 유난히 반칙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 우리 반 아이들은 그런 친구들을 무척 싫어하고, 나 또한 반칙을 하면서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싫고 비겁하다고

생각했다. 작년 운동회 때에는 청팀이 이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공굴리기 시합에서 반칙을 한 것이 밝혀져 결국 우리 백팀이 이기게 된 일도 있었다.

듣고 보니 엄마 말씀이 다 옳았다. 그런데 엄마가 나 때문에 반칙을 하게 돼 '반칙쟁이'가 된다면 엄마한테 죄송하고, 나 스스로도 무척 부끄러울 것 같았다.

나는 엄마의 말씀대로 반칙을 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학교생활을 하기로 결심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연습과 복습도 열심히 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도와주었다.

그렇게 1학기가 끝났고, 2학기가 시작된 후 반장 선거를 했는데 나는 당당히 반장이 되었다. 반칙을 하지 않고 된 반장이었기 때문에 더욱 뿌듯했다. 친구들에게 떡볶이를 사주거나, 연필을 돌리지도 않았다. 만약 그러한 반칙을 해서 반장이 되었다면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아주 작지만 소중한 이 경험을 통해서 반칙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친구들과 선생님께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이 경험을 평생 가슴에 새길 것이다.

수상 작품들을 읽으면서, 나는 '청렴'을 실천한 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하나같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똑똑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떳떳해서 기쁘고 행복하다고 하셨다. 나도 이분들처럼 양심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문복레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은 습관인 것 같다. 어려서부터 반칙을 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면 청렴이 몸에 배어서 평생 청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문복레 할머니처럼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나 김서현은 평생 청렴하게 살았노라'라고 당당히 말하고 싶다.